

지역 소식통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정읍시, 유인물 제작·배포

정읍시가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정보를 모은 '202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유인물에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 지원 등 5개 분야 15개 사업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읍시 각 부서에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법률지원 서비스 등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분야별 지원 서비스 정보가 담겼다.

시는 유인물 4,000부를 제작해 분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비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정기 부안군의회 발의

긴급 지원금 조례안 가결

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상서보안, হল포 진서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월 30일 정부 추경에서 의결이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안군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부안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열띤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부안군의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부안군민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부안군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공공 건축물도 세련되게”

정읍시, 총괄계획가 제도 시행... 도시 디자인 향상 기대  
전문가 위촉, 공공 건축 기획 단계부터 자문 역할 수행

정읍시가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총괄계획가(건축, 디자인) 제도를 시행한다.

총괄계획가 제도는 도시경관이 전체적인 통합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조성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총괄계획가는 최초 사업기획부터 준공 시까지 전 과정을 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건축과 디자인을 구성·계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통해 정읍

시만의 특화된 이미지를 이용한 도시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읍시만의 정체성을 살릴 창의적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위촉식을 갖고 건축 분야에 한광야 교수와 디자인 분야에 이석현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한광야 교수는 현 동국대 건축학부 교수로 미국 하버드대학교 석사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박사학위 소유자로 서울 도시재생 국제현상 설계 당선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디자인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이석현

교수는 현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일본 쓰쿠바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학위와 한국도시설계학회 공공디자인 위원장 등 다수의 연구 활동으로 학계로부터 디자인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그동안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전문성을 갖춘 교수님들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정읍의 공공 건축물과 사회 간접시설의 경관 및 디자인이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건축, 디자인 부문부터 총괄계획가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조경 등 여타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순항

정읍시·NH 협업 추진... 용역보고회 거쳐 10월 착공

정읍시와 NH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성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오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기업 제한형)의 일환이다. 총공사비 184억 원을 투입해 수성동 주민센터 건립과 생활문화시설, 행복주택(98세대)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수성동 주민센터 부지에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 라운데이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북카페·컨벤션홀 등 생활문화시설을 설치한다. 관련해 8일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설계용역에 착수한 후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이날 용역보고회를 거쳐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행복주택(98세대)과 청년임대주택(5호)에는 청년, 대학생, 신

혼부부, 노약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입주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청년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지역 활력 거점지가 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수성동 공공청사 조감도

## 고창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내달 30일까지

고창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사업대상지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

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로 연락하여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청대상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업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성주군로컬JOB센터(사업단장 제경성) 호·영남 양 센터는 농촌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창·성주 로컬JOB센터, 농촌형 일자리창출 협약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성주군로컬JOB센터(사업단장 제경성) 호·영남 양 센터는 농촌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오전 고창군로컬JOB센터 회의실에서 고창군로컬JOB센터 김희진 센터장과 성주군로컬JOB센터 제경성 사업단장 등 양 센터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 센터는 △농촌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로컬JOB센터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양 지역 간 일자리 창출과 양 지역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주군로컬JOB센터는 올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돼 로컬JOB센터를 구축해 운

영 중이다. 성주군로컬JOB센터는 지난 3월에 개소했고, 로컬JOB센터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고창군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둘러보는 등 벤치마킹도 진행했다.

성주군로컬JOB센터 제경성 사업단장은 “영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군단위 내 농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컬JOB센터’를 수행 중이다”며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고창군로컬JOB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과 성과 등을 배우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로컬JOB센터는 4월 현재 구인인원 150명, 구직신청 344명, 취업 73명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종사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을 고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2022년까지 총 80개소 추진

부안군은 축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국민에게 사랑 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 환경에 제공해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는 축산업을 위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안지역에는 총 27개소(2017년 8개소, 2018년 5개소, 2019년 14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으며군은 오는 2022년까지 총 80개소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축산농장의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서류는 농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받을 수 있고 접수처 또한 동일하다.

신청이 접수된 농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은 (재)축산환경관리원이 농장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 적합한 농장을 엄선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기간은 총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대상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축사시설현대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